



## 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변신

HDS코리아 신임 지사장 네이빌 빈센트

**이**타치데이터시스템즈(HDS)코리아의 신임 지사장에 네이빌 빈센트씨가 선임됐다. 새 지사장으로 임명된 네이빌 빈센트씨는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채널 전략 수립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참여했던 컨설턴트의 경험을 살려 솔루션과 컨설팅 중심의 기업으로 변신을 꾀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HDS코리아는 서비스 역량과 국내 채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년전 HDS의 글로벌 채널 전략을 설계한 것을 인연으로 HDS코리아의 지사장 까지 맡게 됐다”며 HDS와의 첫 연을 설명한 빈센트 지사장. 그는 자신이 한국 지사장을 맡게 된 것이 본사가 국내 시장을 시장 흐름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서 가져가겠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 강조했다.

네이빌 빈센트 신임 지사장은 “기존HDS는 우수한 기술력만으로 채널 파트너를 지원했다면 지금부터는 기술과 더불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도 중심에 세우겠다”며 강력한 파트너십이 이윤 극대화를 도모토록 한다는 마케팅 정책을 시사했다.

빈센트 지사장은 지난 18년 동안 IT 업계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과 국제 감각을 키운 전문가로, 최근에는 애듀스테크놀로지(Adduce Technologies)라는 마케팅 회사를 설립하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영업, 마케팅, 사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한국, 일본, 남아시아, 호주 및 구소련 등지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지사관리 및 채널 관리를 펼치온 빈센트 지사장은 특히 지난 2001년부터는 국내에서 상주하며 한국 등 아시아와 유럽지역에 초기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현지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을 컨설팅해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빈센트 지사장은 “컨설팅 및 서비스 업체로 전환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협력사들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본사와의 가교역할에 주력하겠다”며 “협력 업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파트너 중 한 곳이 글로벌 HDS 채널 톱 10에 들 정도로 한국 시장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전세계 HDS 고객사에 미칠 수 있는 가상화 프로젝트 등을 적극 펼칠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보수명주기관리(ILM) 전략의 상위 개념으로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스토리지(AOS)’ 개념을 국내에 적극 소개하겠다”고 덧붙였다.

HDS코리아 설립 이후 외국인 지사장이 연속 임명된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시각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빈센트 지사장은 “인종과 국적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과거 컨설팅 경험 등을 인정받아 임명된 것으로 안다”며 “한국에서 이미 4년동안 사업을 해왔으며 한국 부인을 둔 사람으로서 한국 실정을 매우 잘 알고 있어 사업 수행에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임 지사장은 외국인 3명과 한국인 12명 등 총 15대1의 경쟁률을 뚫고 낙점됐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사장가운데 유일하게 중간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 아시아 퍼시픽 수석마케팅부장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게 HDS코리아의 설명이다. 🌐

글 권경희 기자